

# 반대 여론에 일정 변경 참배...용서와 화합 의미 '반감'

긴급 점검 - 오월단체·특전사동지회 '반쪽 화해' 안 된다

〈上〉 기습 참배·대국민선언 강행 이유는

5·18단체가 특전사단체와 용서·화해를 한다며 공동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대국민선언을 했으나, '반쪽짜리' 화해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오월 3단체'의 한 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행사에 불참한다. 부상자회·공로자회 회원을 비롯한 113개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속에 주최측이 행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또 지난 17일에는 5·18 기념재단 역대 이사장 7명이 행사를 규탄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는 주최측이 5·18 가해자인 계엄군을 피해자로 평가한다. 특전사동지회 측에서도 사과나 진실규명 협력 약속을 하지 않았다. 이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주최측이 반대 여론을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광 등 불순한 세력이 꾸민 선전 선동'으로 치부하고 행사를 강행해 5·18단체와 시민단체, 광주 시민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는 19일 오전 11시에 광주 서구 치평동 5·18문화센터에서 '대국민 공동 선언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국민 공동 선언식'이란 이름이 무색하게도, 오직 행사 관계자만 참가할 수 있는 '그들만의 잔치'로 진행돼 비판을 받았다.

같은 5·18부상자회 회원이라도 주최측이 나눠주는 비표를 받지 못하면 행사장 입구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이 탓에 행사장 입구에서는 오전부터 진입하려는 이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이들 간

유족회 불참 등 반발에 서둘러 참배 공동선언식도 '그들만의 잔치'로 총선 공천 위한 기획 의혹 지적에 "국가사업 따기 위해 강행" 설도 황일봉 부상자회장 "사실 무근"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졌다. 더구나 행사 당일 주최측은 5·18묘지를 기습 참배해 갈등에 불을 지폈다.

당초 주최측은 '공동 선언식' 이후 오후 2시 30분께 특전사동지회와 함께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반발이 이어지자 이들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오전 9시 50분께 참배를 진행했다.

5·18민주묘지는 황일봉 5·18부상자회 회장과 정성국 5·18공로자회 회장, 특전사동지회 25명 등 총 27명만 참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묘역을 참배하거나 방명록을 작성하진 않았으며, 참배는 15분 만에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 회장은 "행사에 반발하는 세력이 몰려들어 복잡하고 충돌이 예상된다. 사람이 없는 오전 중에 참배 일정을 소화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사가 '변갯불에 콩 볶듯이' 이뤄진 배경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주최측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건너뛰고 급하게 행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월 3단체 집행부 일부와 현 정권이



5·18 관련 시민단체가 19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문화센터 앞에 드러누워 '대국민 공동 선언식' 행사를 저지하고 있다.

결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이 퍼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황 회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회장은 내년 2월까지 임기를 마친 뒤 4월 곧장 국회의원 총선에 뛰어들기 위한 동력을 만들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는 의혹이다. 이번 행사로 5·18 문제를 해결했다는 '실적'을 올리고, 이를 발판 삼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는 심산이 아니냐는 것이다.

마침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21년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약속한 '5·18정신 헌법 수록' 이행이 미진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던 차에, 황 회장이 '5·18 문제 해결사' 입지를 다지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황 회장은 지난 2002~2010년 광주

남구정장을 지내면서 정계와 인연을 맺어 왔고, 지난 2021년 11월 윤 대선 후보가 5·18자유공원을 둘러 상무대 군사법정 등을 살펴볼 때 동행해 해설 역할을 자처한 적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황 회장은 "행사는 5·18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총선 출마를 위해 5·18을 이용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총선 공천을 노릴 거면 구태여 시민단체와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행사를 치렀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사를 무루지 않고 서둘러 진행한 이유는 공법 단체로서 국가 사업을 따기 위해서였다는 설이 힘을 얻고 있다. 연초 예산이 집행되기 전 국가 사업을 따내고 올

해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행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사업 계획을 보충처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황 회장은 이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 5·18단체 회원은 "오월 단체 회원들 한 명도 동하지 않은 채 기습 참배를 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불순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행사를 강행한 중심에는 황일봉 회장이 있다"며 "황 회장과 측근들은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오월 동지들을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혹에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계엄군, 5·18 때 질서유지 임무 수행했다” 최익봉 특전사동지회 총재 발언에 ‘시끌’

5·18 단체와 '화해'하기 위해 광주에 왔던 최익봉 (사)특전사동지회 총재가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이 '질서 유지'를 위해 광주에서 임무를 수행했다는 발언을 해 반쪽을 사고 있다.

최 총재는 19일 5·18문화센터에서 열린 '대국민 공동 선언식'에서 "당시 상명하복이 생활화된 군인의 신분으로 상관의 명에 의해 광주 현장에 파견돼 질서유지의 임무를 맡아야 했던 군 선배 여러분

들의 헌신과 노고, 희생에 대해서 진심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5·18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이 발언이 이른바 '5·18 무장폭동설'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5·18은 광주 시민들이 무력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계엄군은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됐다는 설이다.

또 최 총재는 "5·18 당시 불가피했던 상황에 대

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기반이 조성된다면 해묵은 앙금은 풀리고 아픔은 해소될 것"이라고도 발언했다.

이 역시 사과와 진상 규명 협조를 요구하는 5·18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개인적인 감정인 '앙금'으로 치부하고, 가해자인 계엄군 입장에서 '앙금'이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죽이고 학살하는 것이 특전사가 말하는 '질서 유지'냐"며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도 없고 인식의 변화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이다"고 비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계엄군 총에 숨진 전재수군 유족도 정신적 손배 인정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총격으로 숨진 11살 전재수(광주 효덕초 4년) 군의 유족이 40여년 만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복메)는 5·18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가족 12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80~100%를 인정해 정부가 각각 10만~1억4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에는 41년만에 '잃어버린 얼굴'을 찾은 전 군의 유족도 참여했다. 전 군은 1980년 5월

24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 마을앞 동산에서 친구들과 놀다 주둔군과 충돌 병력 간 오인 사격 과정에서 총탄에 맞아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맞았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다"며 전 군 유족에게 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광주시상수도본부 수도시설비 이중부과 위법”

재건축조합 부과 14억 무효 판결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급수공사비에 대한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과한 상수도 원인가 부담금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채승원)는 광주시 광산구 송정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조합)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남광산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가 부담금·급수공사비 부과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재건축조합에 부과한 상수도 원인가 부담금 10억4400여만원과 급수공사비 3억7700여만원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건축조합은 2019년 4월 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 공사를 신청해 승인받고 3억 4200여만원을 들여 수도공사를 직접 완료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총 14억4100여만원의 부담

금(급수공사비 3억7700여만원, 원인가부담금 10억4030여만원, 자체·준공검사 수수료 1900여만원)을 부과했고, 재건축조합은 이를 납부했다. 이후 상수도사업본부는 1700여만원을 들여 급수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자체 비용을 들여 공사를 했음에도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부담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은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 통해 직접 공사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담 의무가 없는 자에게 이중 부과 처분을 한 것으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물 사용량 계산시 재건축조합의 전체 세대수(1660세대) 가운데 기존 세대(961세대)를 제외하지 않고 부담금을 산출한 점, 재건축 사업으로 폐전된 수전 463개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했다가 환불한 점 등으로 미뤄 정액 공사비 고시와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h3>신축원룸(상가) 매매</h3>	<h3>상가매매(상무지구)</h3>	<h3>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h3>																
<p>충남 당진시 대산항, 화력발전소 5분 임대걱정없음</p> <p>▶ 월수익 → 750만 (년9,000만)</p> <p>시세 19억 급매 14억5천 (용7억)</p> <p>010-6670-9800</p>	<p>▶ 중심 상업지구 (유형적합)</p> <p>▶ 유흥가능 (전용 100평)</p> <p>▶ 시세 - 10억</p> <p>▶ 급매 - 7억 (용4억)</p> <p>(보3천, 월수익 380만)</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li> <li>2) 중급반 (실전부터 ~)</li> <li>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li> <li>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li> </ol>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북구 용봉동 (상가빌딩)</td> <td>▶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td> </tr> <tr> <td>북구 신안동 (상가빌딩)</td> <td>▶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남구 사동 (토지)228평</td> <td>▶ 감정가 20억 → 최저가 20억</td> </tr> <tr> <td>구례군 산동면 (숙박시설)</td> <td>▶ 감정가 16억 → 최저가 4억8천</td> </tr> <tr> <td>나주 봉화면 (과수원)</td> <td>▶ 감정가 5억 → 최저가 3억5천</td> </tr> <tr> <td>장성 동화면 (과수원)</td> <td>▶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td> </tr> <tr> <td>장성 북이면 (잡종지)</td> <td>▶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td> </tr> <tr> <td>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td> <td>▶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td> </tr> </table> <p>010-2614-9801</p>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북구 신안동 (상가빌딩)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	남구 사동 (토지)228평	▶ 감정가 20억 → 최저가 20억	구례군 산동면 (숙박시설)	▶ 감정가 16억 → 최저가 4억8천	나주 봉화면 (과수원)	▶ 감정가 5억 → 최저가 3억5천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장성 북이면 (잡종지)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북구 신안동 (상가빌딩)	▶ 감정가 50억 → 최저가 35억																	
남구 사동 (토지)228평	▶ 감정가 20억 → 최저가 20억																	
구례군 산동면 (숙박시설)	▶ 감정가 16억 → 최저가 4억8천																	
나주 봉화면 (과수원)	▶ 감정가 5억 → 최저가 3억5천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장성 북이면 (잡종지)	▶ 감정가 4억 → 최저가 4억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정가 54억 → 최저가 30억																	